

한라시론



김 장 한
전 광저우총영사

우리의 일상은 가족, 직장동료 그리고 이웃과 교류가 시작되기 전 언론 매체의 각종 보도를 접하면서 시작된다. 따라서 언론매체는 하루를 시작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화제거리를 제공해 준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같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희로애락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이다. 또한 일상화된 SNS를 통해 언론보도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소식도 시공간을 넘어 우리 주변에 넘쳐나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새로운 기대와 희망은 찾기 힘들고, 갈등과 부정적 소식

평범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길은?

이 방송과 신문의 주종이 되었다. 서로의 존재를 존중하지 않는 인간 진화의 초급단계에서나 볼 수 있는 생존투쟁이 진영투쟁의 탈을 쓰고 거의 매일 같이 반복되는 것 같아 평범한 사람들의 행복한 삶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자신의 일만 하기도 힘든 평범한 사람들이 나라의 미래까지 걱정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됨에 따라 정신건강이 위협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것 같다.

‘우리가 사는 목적은 행복하기 위해서’라는 주장이 과거부터 많이 회자돼 왔다.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고… 평생을 행복하려면 정직하라’는 영국속담도 있다. 선진국이 될수록 높은 의식수준과 함께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사회로 발전했지만, 우리는 이러한 성숙한 여건을 만들지 못하고 아주 낮은 단계를 맴돌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러울 때가 많다.

국가의 기능은 국민의 삶이 행복할 수 있도록 개인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고, 공공의 복지를 향상시켜야 할 책무를 갖고 있음에도 정쟁으로 국가 기능은 왜곡되고 국민들은 자신도 모르게 편이 갈라져,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는 것이 일상화됐다.

사회에 대한 책임이나 국민의 의무를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높은 도덕성을 사회지도층에 요구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을 우리는 늘 들어왔다. 따라서 사회지도층은 동서양을 불문하고 평범한 사람보다 더 엄격한 기준과 윤리가 적용될 뿐만 아니라 모범을 보여야 한다.

우리 국민들은 위기와 가난 속에서도 인내와 불굴의 정신으로 해방과 전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중진국을 넘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단계에 까지 왔다. 그렇지만 경제성장과 함께 병행해야 할 사회전반의 균형적 발전을 이룩하지 못하고, 정치

권은 진화가 덜된 상태에 정체되어 있는 것 같다.

모든 사람들은 한번 태어나는 유한한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개인의 행복한 삶은 매우 소중하다. 평범한 사람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사회지도층은 일탈에서 벗어나야 한다. 아울러 사회규범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

허황한 말의 성찬과 자신만의 환상에서 벗어나 평범한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찰해 바른 길로 나갈 수 있어야 한다. 평범한 사람들이 편하게 살아가 수 있도록 정치권을 비롯해 사회지도층이 이제라도 모범을 보여준다면 우리는 다시 도약하고 평범한 사람들이 행복을 꿈꿀 수 있을 것이다. 평범한 사람들의 기대와 간절한 염원을 사회지도층이 저버린다면 우리 모두는 함께 버림받는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을 역사는 늘 경고해왔다.

사설

4·3특별법 개정안 20대 국회서 처리돼야

20대 국회가 마지막 정기국회에 돌입한 가운데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처리가 불투명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4·3 희생자 배·보상을 골자로 한 특별법 개정안이 계류 중입니다. 4·3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완전한 해결을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유족과 생존희생자들은 애가 타는 심정입니다. 4·3유족회 등은 오는 18일 국회 앞에서 특별법 개정안 처리 촉구 집회를 계획하는 등 강력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4·3특별법 개정안은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오는 21일 이후에야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4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어 12월10일 종료되는 이번 정기국회가 사실상 법안 처리의 마지막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회 안팎에서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는 있으나 미약하기만 합니다. 여야간 정쟁에다 내년 선거를 앞둔

마지막 국회라는 점에서 뒷전으로 밀릴 우려도 큼니다.

처음 4·3특별법 제정은 20년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를 수 있었습니니다. 당시에도 여야간 정쟁으로 인해 국회 통과가 쉽지 않았습니니다. 그렇지만 4·3으로 인한 도민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특별법이 20세기를 넘겨서도 안된다는 공감대 아래 1999년 12월 16일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니다. 2000년 1월에는 특별법이 제정되고 이후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은 탄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니다.

여야 정치권은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갈등이 극심했던 당시에도 국회 통과가 이뤄진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가 4·3특별법 제정한 국회 통과 20년이 되는 해이자 20대 마지막 정기 국회라는 점을 유념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야 합니다. 특별법 개정안 처리 불발로 또다시 유족들에게 아픔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편집국 25시

습관적이거나 소극적이거나



김 지 은
교육문화체육부 차장
jieun@ihalla.com

취재의 시작은 한 학부모가 올린 글이었다. 제주도교육청을 통해 지원 받은 초등 안심서비스 단말기(등하교 정보 제공 등), ‘키즈폰’에 대한 내용이었다. 자녀가 쓰는 키즈폰이 고장 나 고치려다보니 수리 기간이 길어져 아이가 혹시 모를 위험에 처하진 않을까 걱정된다는 내용이었다. 키즈폰의 경우 타 지역에 있는 제조사를 통해 직접 수리를 받아야 해 제주에선 고칠 방법이 없는 탓이다.

문제는 또 있었다. 제주도교육청은 “키즈폰이 고장 나면 통신사를 통해 ‘대체폰’이 제공된다”고 했지만 실상은 달랐다. 키즈폰을 공급한 한 통신사 대리점에 문의하니 고장 난 단말기를 대신할 수 있는 “물량이 없다”는

말이 돌아왔다. 제주만의 문제는 아니었지만 도교육청이 이런 상황에 갇혔던 데에서 현장에서 제대로 된 안내가 이뤄지지 않음을 짐작하게 했다. 자녀가 사용하던 키즈폰이 고장 나면 당장 등하굣길 안전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일 거다.

“일부 사례는 관행적, 습관적, 소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 우리도 인지하지 못한 잘못이 지적되기도 했다. 제주 교육이 공고히 발전하고 도민의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선 지금 이 시점에서 되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지난 1일 도교육청 관계자가 제주도감사위원회 종합감사결과에 따른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꺼낸 얘기다. 수많은 교육 현안 속에 얼핏 사소한 보일 수 있는 키즈폰 이용 불편 등의 원인도 들여다보면 ‘습관적 업무’와 맞닿아있다. 이미 수년 전부터 진행되던 사업이라 교육청의 말마따나 “대체폰” 공급이 가능했을 수도 있지만 달라진 상황에서 이 같은 안내는 오히려 혼란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한 꼼꼼한 행정이 아쉽다.

뉴스-in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사장 임명 보류

내정자 논란에 부정여론 팽배

○…제주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사장에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A씨가 내정됐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사회가 2일 열린 회의에서 이사장 임명 관련 심의 안전을 보류.

지난달 27일 민주노총 제주본부에 이어 이날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에서 A씨의 내정설을 규탄하는 성명과 논평을 발표하며 반발. 주변에서는 “부정 여론의 영향으로 보인다”며 “교통약자들을 위한 시설인 만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임명되길 바란다”는 기대감을 표명.

전국체전 선수단 격려금 답지

○…전국체전 출전 제주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하는 격려금이 쇄도. 도체육회 관계자는 “제100회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격려성금이 전달되고 있다”며 “부평국 상임부회장 500만원, 고정신 부회

장 500만원, 윤옥희 이사가 100만원을 전달했다”고 설명.

이와 “제주체육원로회(회장 변창보) 100만원, 웅진건설(송승천 대표이사) 500만원, 대한건설협회 제주도회(회장 장대범) 500만원을 포함한 2일 현재까지 2200만원이 답지됐다”고 언급. 표성준기자

조성진 공연 순식간 매진

○…서귀포 예술의전당이 11월 2일 마련한 기획초청공연 ‘피아니스트 조성진 리사이틀’의 티켓 예매가 시작되기 바쁘게 매진을 기록. 예술의전당은 1일 오전 도민대강 현장매매, 2일엔 홈페이지 예매를 진행했는데 현장매매는 오전 6시 이전부터 줄을 섰고, 인터넷 예매는 접속자가 몰리며 장애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30분만에 매진. 예술의전당 관계자는 “공연 티켓이 이렇게 빨리 매진되기는 처음”이라며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의 공연에 도민 관심이 상당하다”고 언급. 문미숙기자

감귤 경쟁력 못잡게 환경문제 감안할 때

우리에게 타이백은 낯설지 않은 용어입니다. 감귤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일명 타이백재배로 불리는 토양피복재배는 감귤의 당도를 향상시키는 기술입니다. 과수원 바닥에 설치한 타이백이 빛물의 토양 침투를 막아 주고 반사되는 햇빛을 통해 당도를 높여줍니다. 행정에서 타이백을 지원하면서 발생하는 페타이백 처리가 골칫거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관내 감귤 농가에 보급한 토양피복재배 지원사업은 2017년 427ha, 2018년 532ha, 2018년 602ha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해 행정에서 60%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타이백 사용 기간은 농가별로 다르지만 평균 2~3년입니다. 일부 농가는 1년 사용 후 폐기하면서 페타이백 발생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페타이백의 경우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배출

이 안된다는 점입니다. 페타이백은 재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이 때문에 농가에서 매립장으로 운반해 유상 처리하고 있습니다. 매립되는 페타이백은 2017년 259t, 2018년 312t, 올해 8월까지 245t에 이를 정도로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품질 감귤을 생산하기 위해 지원하는 타이백이 결국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겁니다. 현재 매립되는 영농폐기물의 약 80%가 페타이백이 차지하고 있어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부 농가에서는 페타이백을 농경지에 무단 방치하거나 소각하면서 환경오염의 우려를 낳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행정에서 페타이백에 대한 처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매립장 포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토양피복재배 지원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감귤의 경쟁력 못잡게 환경문제는 말할나위 없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부 고

강승보(前 교육공무원)·승욱(서귀포시산업과학고등학교 교사) 어머니 **제주양씨 춘자(향년 86세)**께서 서기 2019년 10월 2일 오전 10시 19분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19년 10월 4일(금)
▶발인일시: 2019년 10월 5일(토) 07:30 출발
▶발인장소: 서귀포한빛장례식장
▶장 자: 양지공원(09:30)

아 들 강승보, 승욱, 박향춘
딸 강승선, 사 위 이광우, 승열, 송정균
손 자 강동선, 외손자 이주용, 원석, 송영준
원관 외손녀 이주영, 송민정
손 녀 강지원, 지영

※ 연락처 : 강승보 010-7297-0059
강승욱 010-4693-5405
이광우 010-2696-7573
송정균 010-6546-4858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광산김씨 홍자(향년 79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19년 10월 3일

남 편 박경시, 아 들 박진호, 며느리 이혜숙, 진원, 강주영, 진철, 김효순, 진일, 고매화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적물 미국식품의약회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소지 선화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석주개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

전기차 사고 팝니다.

evworld.kr

전기자동차매매상사
제주시 일주서로 7714(도두일동)
1544-8236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 리모델링 辛(신) 一(일) 祚(조)

누수탐지·방수

신축/중축/리모델링/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지붕개량/옥상방수/페인트공사/창문/도어문/대문 교체 불박이장/싱크대/신발장/도배/장판 몰딩 시공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문의 **064.742.6234**
010.7599.6234

WIDEX® HIGH DEFINITION HEARING

제주센터 와이드스 보청기

국민건강보험, 청각장애인 보장구 지원금 확대 실시
최대 131만원 까지 지원

소리왜곡이 적은 자연스럽고 편안한 음질

보청기만을 연구·개발하는 덴마크 와이드스 제품

왜! 와이드스 보청기 일까요?

일관된 청각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믿을 수 있는 철저한 사후관리

심의회호 2018-GN1-11-0011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꼭 읽고 사용하십시오.
판매처 : 와이드스 보청기 제주센터

상담예약 064) **755.1005**

제주시 동광로 4, 삼육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